

〈八子百選策〉을 통해 본 박제가의 작품선정 기준과 당송문학을 보는 시각

朴 香 蘭*

차 례

- | | |
|-----------|------------|
| 1. 序論 | 4. 文以明道 |
| 2. 質朴과 超然 | 5. 氣勢와 論理性 |
| 3. 詩以萬物托興 | 6. 結論 |

국문초록

〈八子百選策〉은 정조의 〈八子百選策問〉에 대한 박제가의 대책인데 그의 문학적 지향과 당송문학에 대한 비평이 집결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인으로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근거 제시는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군주의 선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문장에는 박제가만의 문학적 지향이 다분히 체현되고 있다. 중국문학과 문인에 대한 칭찬과 흠모를 아끼지 않았던 박제가가 드물게도 〈八子百選策〉에서는 극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당송문학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송문학에 대한 박제가의 이해와

* 廣東外語外貿大學 東方語言文化學院 副教授.

구체적 작품에 대한 품평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조의 선정기준과 비교를 하여 박제가의 선정기준과 당송문학을 보는 시각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박제는 質朴과 超然을 추구하고 표현수법에 있어 꾸밈이 없이 음미할 수 있는 문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주제에 있어서도 비관적이고 불만을 토로하는 문장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문장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는 문장은 性情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모든 경물에 기탁하여 자연스러운 감정을 토로하고 그 속에서 인생철학을 제시해야 된다면서 주제의 교훈적 가치와 철학적 의미도 자못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작품선별에 있어서 기세가 충만하고 논리성이 뛰어난 한유의 문장을 최고로 간주하였다.

주제어 : 박제가, 팔자백선, 팔자백선책, 당송문학, 작품선정 기준

1. 서론

신축(1781)년 5월 정조는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펼치면서 몸소 당송팔대가의 각 문체 백 편을 선정하여 『御定八子百選』을 엮고 成大中和 朴齊家에게 監印을 맡긴다. <八子百選策>은 이 시기 정조의 선정기준에 대한 박제가의 대책인데 박제가의 당송문학 비평과 문학적 지향이 집결된 작품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박제가 연구에 있어 그의 북학사상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그의 중국문학 비평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박제가가 적극적인 외래문화 수용자세로 지나친 개방적 지향을 가졌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 박제는 ‘북학’의 선도자로서 “문장의 도는 그 마음을 트이고 이목을 넓히는 데 있는 것이지 공부한 시대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¹⁾ 청대문학

1) 朴齊家, <詩學論>, 『貞齋閣集』, 『한국문집총간』 261, 612쪽, “文章之道, 在於開其

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중국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정은 자기에 미칠 자가 없다”²⁾ 고 자부하면서 백 여 명이나 되는 청대문인들과 거리낌 없이 교류를 즐겼으며³⁾ 중국문학과 문인에 대해서도 아낌 없는 칭찬과 흠모를 보였다. <八子百選策>은 박제가가 중국문학에 대해 냉정하게 비평을 가한 극히 드문 문장으로 중국문학에 대한 박제가의 객관적 평가와 이해를 고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팔자백선』에 대한 연구는 정조의 문화정책연구에 집중되어 정조의 당송 고문 수용양상⁴⁾, 정조의 인간적인 면모 규명⁵⁾, 『唐宋文醇』과의 비교로 정조의 소명의식 고찰⁶⁾, 선집 편찬과 간행에 대한 書誌的 연구⁷⁾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연구가 산출되었다. 그러나 감인을 맡은 문인들의 문학적 지향, 나아가 정조와 문인들 사이 문학적 소견 차이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선행작업으로 唐宋八子 작품에 대한 박제가의 품평과 작품 선정기준을 면밀히 고찰하고 당송문학에 대한 박제가만의 시각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心智，廣其耳目，不繫於所學之時代也。”

- 2) 朴齊家, 정민 등 역주, <興潘秋庭筠>, 『貞蕤閣集』下, 돌베개, 2010, 618쪽. “慕中國之苦心，則諸君子亦各自以爲不及也。”
- 3) 朴長蘅, <凡例>, 『縞紵集』卷之一, 哈佛大學燕京圖書館藏. “凡一百十人之內, 除親見者外, 望風溯想者四, 折簡往復, 而未見其人者一, 聞聲相思者二, 詩筆相通, 而未得證交者一. 望風溯想者, 陸筱飲·沈雲椒·吳西林·袁簡齋, 是也. 折簡往復, 而未見其人者, 郭東山, 是也. 聞聲相思者, 王椒畦·劉澄齋, 是也. 詩筆相通, 而未得證交者, 嚴有堂是也.”
- 4) 오수형, 『正租의 古文 指向과 御定 『唐宋八子百選』』, 『중국문학』 67, 한국중국어학회, 2011.
- 5) 민선영, 『마음의 휴식을 위한 공부- 『八子百選』과 『八家水圈』의 記를 중심으로』, 『중국산문연구집간』 3, 한국중국어산문학회, 2013.
- 6) 查屏球, 滕漢洋, 『『八子百選』與『唐宋文醇』隱曲關係考-兼論『唐宋八大家文鈔』在東亞書面語共同化進程中的範式研究』, 『中山大學學報』, 2012年第6期.
- 7) 尹鉉晶, 『『八子百選』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大東文化研究』 93, 대동문화연구원, 2016.

2. 質朴과 超然

박제가는 “天機生質朴, 妙處自能通”⁸⁾이라고 하여 천성은 질박함에서 생기고 자연의 오묘함과 스스로 통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지만물을 관찰함에 있어서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적인 묘미를 강조하였다.

백세 이전의 사람들과 흥금을 트고, 만 리 밖의 사람들과 함께 날아 다녔다. 구름과 안개의 기이한 자태를 관찰하고, 온갖 새의 신기한 소리에 귀 기울였다. 아득히 먼 산과 시내, 해와 달과 별자리, 지극히 작은 풀과 나무, 벌레와 물고기, 서리와 이슬, 날마다 변화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욱하게 마음속에서 깨달으니, 말로는 그 情狀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입으로는 그 맛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혼자만 알 뿐 다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 아아! 형체만 남기고 가 버리는 것은 정신이요, 빼는 써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의 뜻을 아는 자는 생사와 성명을 초월한 사람일 것이다.⁹⁾

박제가는 옛사람들의 글을 널리 읽으면서 뜻을 호방하게 키웠으며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였다. 온갖 사물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고 함께 공명을 느끼며 형언키 어려운 복잡 미묘한 감정과 그 무의식적인 깨달음이 자연스레 창작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세력이 비슷한 제 나라와 초 나라이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 아니하고, 추방할 것이 정 나라와 위 나라가 아니라도 남겨 두느냐 마느냐 하

8) 朴齊家, 정민 등 역주, <舟行雜詠 八首>, 『貞蕤閣集』上, 서울:돌베개, 2010, 149쪽,

9) 朴齊家, <小傳>, 『貞蕤閣集』下, 앞의 책, 206쪽, “與百世而唯諾, 越萬里而翱翔, 觀雲烟之異態, 聆百鳥之新音, 與夫山川日月星辰之遠, 草木蟲魚霜露之微, 所以日變化而莫知然者, 森然契于胸中, 言語不能悉其情, 口舌不足喻其味. 自以爲獨得, 百人莫知其樂也. 嗟乎, 形留而往者神也, 骨朽而存者心也. 知其言者, 庶幾其人於生死姓名之外矣.”

는 것을 논의하여야 한다. <諱辯>은 실으면서 누락시킨 것과 <段太尉逸事狀>은 실으면서 <張中丞傳後敘>는 기록하지 않은 것 따위가 그러한 것이다.¹⁰⁾

(2)유종원의 <段太尉逸事狀>은 橄欖의 달콤한 맛과 같고, 한유의 <張中丞傳後敘>는 차려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경우이니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것이 때에 적절합니다.¹¹⁾

(3)『八子百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견해가 각각 달라서... 어떤 사람은 “<張中丞傳後敘>가 누락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하교하기를, “...장중승전후서는 문장이 뛰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柳宗元의 <段太尉逸事狀>이 이미 들어갔으므로 이것까지 실을 필요는 없다.”¹²⁾

(1)정조는 <八子百選>의 작품선정에 있어 극히 신중성을 보였다. 처음부터 두 편을 모두 수록할 생각이 없었고 똑같이 훌륭한 작품 중에 한 편만을 선정함으로써 박제가에게 근거제시를 기대했던 것이다. <段太尉逸事狀>은 인물형상이 선명하고 구조가 엄밀하며 의론적인 어구가 없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인물성격의 특징과 형상을 생동하게 그려냈다. 인물대비, 사실배치, 언어의 개성화 등에서도 극히 독특한 특징을 보여 주었다. 반면 <張中丞傳後敘>는 安史의 난에서 성문을 지킨 張巡, 許遠, 南霽雲 등 세 사람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충심과 굳건한 의지를 칭찬하고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서슴없이 버린 자들을 비평하고 장순과 허원을 혈투는 자들에 대해서도 호된 공격을 가하였다.

10) 正祖, <策問四>, 『弘齋全書』卷五十一, “均爲齊楚, 而立落未必皆然. 放非鄭衛, 而存刪不無可議. 如諱辯之載, 而師說之漏焉. 段太尉逸事狀之見編, 而張中丞傳後敘之不錄焉.”

11)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蕤閣集』下, 앞의 책 80쪽, “段太尉狀回味之橄欖也, 張中丞敘既飽之飢飢也. 舍舊圖新, 適于時也.”

12) 正祖, <文學四>, 『弘齋全書』卷一六四, “張中丞傳後敘, 非不燁然光也, 柳子之段太尉逸事狀既編入, 則此不必並載.”

영웅의 사적을 서술할 때는 극히 비분하고 침통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정의가 넘쳐흐르는 작품이다. 인물성격이 선명하고 형상을 생동하게 부각하였다는 점에서는 두 작품 모두가 뛰어나다. <張中丞傳後敘>는 역사성과 문학성을 융합시킨 한유의 필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명작이다. 한유가 이 문장을 창작한 이유는 진상규명과 소인배에 대한 공격에 목적을 두었기에 문장에 개인적인 감정과 비분이 넘쳐흐른다. 과도한 감정 유출 없이 의론을 펼치지 않고 냉정하게 서술만을 펼쳤던 유종원의 逸事狀에 비해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2)그리하여 문장에 과도한 감정토로를 꺼렸던 박제가는 유종원의 <段太尉逸事狀>를 橄欖의 달콤한 맛에 비유하였고, 한유의 <張中丞傳後敘>는 차려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경우라고 하였던 것이다. 박제가는 시를 평가함에 있어 맛에 비유하기를 즐겼다. <詩選序>에서도 시를 가려 뽑는 방법을 맛에 비유하여 “무릇 사물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움직이고 눈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은 모두 맛¹³⁾”이라고 하였다. 감람은 처음에는 쓰고 뱉으나 먹을수록 단맛이 난다. 문장을 감람에 비유했을 때는 餘味를 의미한다. <張中丞傳後敘>의 훌륭함은 독서를 하는 도중에 극대화되지만 <段太尉逸事狀>은 끝없이 흥미할 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神韻說을 제창하여 ‘味外之味’, ‘妙挀’을 추구했던 王士禎의 주장과도 비슷한 일면이 있다. 문장을 맛으로 비유하고 王士禎과 魏叔子를 창조 최고의 문장로 간주하였던¹⁴⁾ 박제가에게 있어 끝없이 흥미할 수 있는 <段太尉逸事狀>이야말로 실로 뛰어난 작품이었을 것이다. 3)따라서 정조 역시 박제가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張中丞傳後敘> 역시 천고의 명작이지만 柳宗元의 <段太尉逸事狀>이 이미 들어갔으므로 굳이 실을 필요는 없다

13) 朴齊家, <詩選序>, 『貞菴閣集』下, 앞의 책 129쪽, “詩選之法, 要當百味俱存, 不可泯然一色. 夫選者何? 擇之使不相混也, 泯然一色則是選而再混也.”

14) 朴齊家, 이익성 역주, <北學辯>, 『北學議』, 서울:을유문화사, 2011, 326쪽, “今不識陸隴其·李光地之姓名, 顧亭林之尊周·朱竹陀之博學, 王漁洋·魏叔子之詩文, 而斷之曰, 道學文章俱不足觀, 並與天下之公議而不信焉.”

고 하면서 <段太尉逸事狀>의 가치를 더욱 인정하였던 것이다.

<秋聲賦>와 <赤壁賦>는 騷體여서 넣었다면 <送窮文>과 <乞巧文>은 어찌하여 빠뜨린 것인가?¹⁵⁾

한유의 <送窮文>이나 유종원의 <乞巧文>은 불평스러운 읍조림이며, 구양수의 <秋聲賦>와 <赤壁賦>는 티끌세상에서 초연함을 드러낸 것입니다.¹⁶⁾

박제가는 과도한 감정토로는 물론이고 울분이나 불평의 어조가 깔려 있는 문장도 선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유의 <送窮文>, 유종원의 <乞巧文>은 불평스러운 읍조림이라고 간주하여 선정하기를 반대한다. <送窮文>은 주인과 “智窮”, “學窮”, “文窮”, “命窮”, “交窮” 다섯 귀신과의 대화 속에서 군자의 가난을 형상적으로 대변하였으며 세속적인 사회에 몸담고 있는 저자의 불평을 토로한 작품이다. <乞巧文> 역시 직녀에게 乞巧를 하는 풍습을 빌어 교활한 자들의 추태를 풍자하고 즐렬하다고 자칭하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은 현자의 큰 지혜를 반어적으로 암시하였는데 두 작품 모두 표현수법이나 풍격이 사뭇 비슷하다. 작품 자체에 노골적으로 감정토로가 넘치지 않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저자의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기에 박제가 불평의 어조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대신 歐陽脩의 <秋聲賦>와 蘇軾의 <赤壁賦>는 초연함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선정하였던 것이다. 가을은 그 스산함과 쓸쓸함 때문에 역대로 많은 시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지만 <秋聲賦>에서는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근본적 원인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자는 표현수법에 있어 대구를 대거 사용하

15) 正祖, <策問四·八子百選>, 『弘齋全書』卷五十一, “秋聲·赤壁, 旣以騷體而入鈔, 則送窮·乞巧, 奚爲而闕之歟?”

16)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菴閣集』下, 앞의 책, 81쪽, “送窮·乞巧, 不平之鳴, 而若秋聲·赤壁則超然埃壘之表矣.”

여17) 가을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적으로 그려냈다.

<赤壁賦> 역시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세속을 잊고, 역사인물의 흥망을 통하여 인생의 짧음과 현실의 고통을 토로했지만 작품 저변에는 만물의 영구성을 노래하는 낙관적인 인생태도가 깔려 있다. 작품에는 경물 묘사와 표현수법에 있어 박제가가 추구하는 초연함이 흘러넘친다. “淸風徐來, 水波不興(청풍은 서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는다)¹⁷⁾”는 간결한 어휘로 불어오는 미풍과 가을밤 수면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고 고적한 배가 수면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을 “縱一葦之所如, 凌萬頃之茫然(한 조각 작은 배를 가는대로 맡겨서, 한없이 드넓은 강물 아득한 데를 넘어가노니)”로 생동하게 그려냈다.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역시 초연함이 넘친다. 들려오는 통소 소리가 너무 구슬퍼 “원망하듯 사모하는 듯, 흐느끼는 듯, 호소하는 듯(如怨如慕, 如泣如訴)” 여음이 길게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는 교룡을 춤추게 하고 외로운 배에 사는 과부를 흐느끼게 한다(舞幽壑之潛蛟, 泣孤舟之嫠婦)”고 하였다. 문장에 깃든 인생철학 역시 인생무상이라는 부정적이고 슬픈 감정이 주를 이루지 않고 달, 흐르는 강물과 같은 영원한 존재, 상대적인 불변의 대상에 감정을 기탁하여 “物與我皆無盡也”라고 하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저자의 낙관적이고 활달한 개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작품이다. 이처럼 박제가는 표현수법에서 과하지 않고 음미할 수 있는 문장, 주제에 있어서도 비관적이고 불만을 토로하는 문장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문장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17) 歐陽脩, <秋聲賦>, 『古文眞寶大全後集』, 서울:學民文化社, 1992, 368쪽, “其色慘澹, 煙霏雲斂, 其容淸明, 天高日晶, 其氣栗冽, 砭人肌骨, 其意蕭條, 山川寂寥.”

18) 蘇軾, <前赤壁賦>, 『古文眞寶大全後集』, 439쪽.

3. 詩以萬物托興

정조는 실용에 무익하고 마음까지 방탕하게 하는 稗官小說이나 명칭의 小品을 극력 반대하고 문풍이 世道와 時運과도 관계되는 엄청난 문제이기에 반드시 문체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였다.¹⁹⁾ 이는 정조의 원론적인 載道의 문학관과도 직결된다.²⁰⁾ 하지만 박제가는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군주의 선정기준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박제가는 당시 조선사회의 몰락해가는 문풍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경전에만 빠져 입으로만 고문을 읽는 자들, 공령문에 취해 변려문만을 법도로 받아들이는 자들, 학식이 공소하면서도 고증을 일삼는 자, 문장을 많이 섭렵했지만 문체에 어두운 자들에게 호된 질책을 가했었다.²¹⁾ 그 역시 문풍 변화의 시급함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점에서는 정조와 생각이 일치한다. 하지만 唐宋八子の 작품선정에 있어 문장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稗官小說과 明清 小品을 배척했던 정조의 견해와는 서로 충돌한다.

소식이 그림을 논한 것은 신기에 가깝습니다. ‘전신론’ 한 단락은 봄이 지난 뒤에 홀로 핀 꽃이요, 잠결에 듣는 청아한 경쇠 소리와 같습니다. 幾策과 같이 큰 논의를 펼친 경우 선택의 기준이 너무 편협해서 자신의 기준 밖의 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²²⁾

19) 正祖, <文學三>, 『弘齋全書』卷六十三, “稗官小品之書, 最害人心術. 士之有志於文章經術者, 雖賞之不觀. 況其嚙殺尖薄, 孤臣孽子悲苦愁悵之聲, 何苦而爲此. 始聞有爲此體者, 猶付之不屑之科, 而不治治之. 近見詩禮家子弟之出入近密潤色王猷者, 尙不免習俗之漸染. 則大覺其爲世道時運之所關, 不得不費了聲氣, 一番隳樞.”

20) 오수형, 앞의 책, 142쪽.

21)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菴閣集』下, 앞의 책, 85쪽, “文章之弊, 至于近日而極矣. 浸淫於說經者, 或認話頭爲古文, 浮沈于功令者, 第奉駢儷爲關石, 或空疎而強爲考證, 或涉獵而昧於體裁. 反覆纏綿, 載胥及溺.”

22)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菴閣集』下, 위의 책, 81쪽, “長公之於論畫, 幾乎神矣.

박제가에 의하면 작품의 완성도는 그 문장력에 있지 문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조는 박제가에게 經綸大筆을 실지 않고 골계소품 <傳神>을 수록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기대하자²³⁾ 그는 소식의 “전신훈”은 신기에 가깝다고 못을 박고 기책과 같은 주의문의 경우 문체가 너무 형식화되어 자신의 기준 밖의 것은 허용을 안 한다고 강론한다. 박제가는 이처럼 문학비평에 있어 주제와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정에서 발현된 참된 모습²⁴⁾”으로 창작된 작품을 최고의 작품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던 “문장의 道는 그 마음의 지혜를 열고 견문을 넓히는 것에 달려 있다”²⁵⁾는 문학관과도 일맥상통한다.

박제가의 이러한 주장은 정조의 문장선정 기준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사실 정조는 문체 개혁을 추구함에 있어 패관잡기, 소품문을 배척하는 동시 실용성이 결여되어 지나치게 형식화된 주의문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정조는 그 표준을 唐 奏議文에서 찾고²⁶⁾ 『陸奏約選』을 편집하여 출간하는가 하면 소식의 『策略』을 策論의 표준으로 제시하

傳神一段，春餘之孤花，而睡夢之清磬也。如幾策之大議論，選格之邊幅甚窄，恐難容榻外之鼾睡矣。”

이 책의 역문은 원래 “큰 논의를 펼친 주의문의 경우 가려 뽑는 기준이 매우 궁색하니 책상 밖에서 코 골고 자는 것처럼 용납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로 되어 있다. 하지만 “難容榻外之鼾睡”는 李燾의 <太祖開寶八年>, 『續資治通鑒長編』, “上怒，因按劍謂鉉曰，不須多言，江南亦有何罪，但天下一家，臥榻之側，豈容他人鼾睡乎！”에서 나오는 전고로서 타인이 자신의 이익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폄하했다기보다는 “기준이 너무 편협해서 자신의 기준 밖의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23) 正祖, <策問四·八子百選>, 『弘齋全書』卷五十一, “傳神, 卽滑稽小品而選, 錢幾策, 乃經綸大筆而遺珠”

24) 朴齊家, <詩學論>, 『貞蕤閣集』下, 앞의 책, 37쪽, “發之以性情之眞.”

25) 朴齊家, <詩學論>, 『貞蕤閣集』下, 위의 책, 37쪽, “文章之道, 在於開其心智, 廣其目耳.”

26) 正祖, <文學五>, 『弘齋全書』 권165, “予於唐以後文章, 最喜陸內翰奏議, 爲其明白剴切, 無意於文而文莫加焉也. 章疏之文, 苟能善學此體, 當爲最上地位.”

였다.²⁷⁾ 또한 『당송팔자백선』에도 16편의 上書, 策論 중 소식의 글만 5편을 싣기도 하였다. 정조는 팔고문이라는 형식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한 科文에서 발단하여 확대된 조정의 문신들의 형식화한 문체를 개혁하기 위해 소식의 의론성 문장을 글쓰기의 전범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²⁸⁾ 신하들이 형식화된 문체에 집착하지 말고 명백하고 절실하며 정치, 교화에 도움이 되는 주의문을 작성할 것을 원하였던 정조가 전범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박제가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골계소품과 幾策을 비교하여 형식적인 문체를 취하느니 문장표현이 뛰어난 골계소품 <傳神>을 싣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정조가 정치적 입장에 기인하여 실용적인 문체를 주장하였다면 박제가는 문학창작에 입각하여 형식적인 문체의 제한성을 지적하고 문장의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조의 작품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바 정조는 <傳神>을 비록 “소품과 비슷하기는 하여도 문장가가 깨닫는 데에 이것이 최고”²⁹⁾라고 극찬하기까지 한다.

박제가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천지만물에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시로 표현될 때야말로 마음이 슬기로워질 것이고 천기가 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⁰⁾ 따라서 작품선정에 있어도 저자가 능한 문체만을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7) 正祖, <文學五>, 『弘齋全書』권161, “始自今策問, 略倣古式, 盡擺近規, 問以當世之要務, 俾不得以摸擬樵撰, 各隨己見, 做出數十行文字. 如蘇氏策略, 則庶乎其機軸指畫, 不歸一套, 爲有用之文, 而易辨其工拙, 行之悠久, 則亦必爲新進輩留意世務之一助也.”

28) 오수형, 『正祖의 蘇軾 산문 수용 양상 연구』, 『중국문학』 77, 한국중국어학회, 2013, 182쪽.

29) 正祖, <文學四>, 『弘齋全書』권164, “又有言傳神之不當入者, 教以雖似小品, 於文章家得悟解者, 此爲上乘”

30) 朴齊家, <古董書畫>, 『楚亭全書』下, “故鳥獸蟲魚之名物, 尊壘彝之形制, 山川四時書畫之意, 易以之而取象, 詩以之而托興, 豈其無所然而然哉, 蓋不如是, 不足以資其心智, 動盪天機也.”

한유의 碑와 유중원의 記, 구양수의 序와 소식의 論은 작가의 대략입니다. 각각 문장가별로 여러 체를 취한 것이 『팔대가백선』의 의례입니다. 그 장점에 치우치지 않은 것도 또한 형세입니다.³¹⁾

시를 가려 뽑는 방법은 마땅히 온갖 맛을 두루 갖추어야지, 온통 한 가지 특색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려 뽑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려내어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 왜 가려 뽑았는가? 맛이란 무엇인가? 노을과 수놓은 비단을 본 적이 없는가? 잠깐 사이에도 마음과 눈이 함께 옮겨 가고 기이한 자태가 펼쳐진다. 대충 보면 그 정을 얻을 수 없지만 찬찬히 음미하면 그 맛이 무궁하다. 무릇 사물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움직이고 눈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은 모두 맛이다. ³²⁾

박제가는 문장은 性情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기에 시를 가려 뽑는 방법은 마땅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모두 취해야지,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마음을 움직이고 눈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문장은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당송팔자의 작품 중에 뛰어나다고 간주했던 蘇軾의 <凌虛台記>, 蘇轍의 <武昌九曲亭記>, 蘇軾의 <墨君堂記>, 歐陽修的 <樊侯廟災記>, <有美堂記>, 曾鞏의 <擬峴台記> 모두 경물에 기탁하여 자연스러운 감정을 토로하고 그 속에서 인생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구조, 표현수법이 뛰어날 뿐더러 인생철학까지 제시한 문장이다.

박제가는 蘇軾의 <凌虛台記>와 蘇轍의 <武昌九曲亭記>를 서로 마주선 봉우리와 같다고 하였는데³³⁾ 두 작품 모두 변화무쌍한 경물묘사와

31)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菴閣集』下, 앞의 책, 81쪽, “韓碑柳攄記歐序蘊論者, 各家之槩略也. 各家之中, 各取諸體者, 百選之義例也. 其不能偏於所長, 亦勢也.”

32) 朴齊家, <詩選序>, 『貞菴閣集』下, 위의 책, 129쪽, “選詩之法, 要當百味俱存, 不可泯然一色. 夫選者何? 擇之使不相混也. 泯然一色則是選而再混也, 初何選之有哉? 味者何, 不見夫雲霞與錦繡歟. 頃刻之間, 心目俱遷, 咫尺之地, 舒慘異態. 泛觀之不足以得其情, 細玩則味無窮也. 凡物之變化端倪, 有足以動心悅目者皆味也.”

33)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菴閣集』下, 위의 책, 84쪽, “凌虛九曲之對峙.”

복잡 미묘하고 씩씩한 내면심리를 완벽히 융합시켜 자연과 벗하여 함께 지내려는 저자의 인생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凌虛台記>는 인생에 조금 성취가 있다하여 자만하지 말고 평생 고상한 절조와 후세에 길이 영향을 줄 업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면적 의지를 담고 있고, <武昌九曲亭記>는 仕途得失에 대한 소철의 초연함과 자연에서 자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한 편, 그의 활달함과 의연한 인생태도를 대변하고 있어 여운을 남긴다. 두 작품 모두 단순한 자연묘사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경물에 기탁해 의론을 펼치고 인생철학을 펼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墨君堂記> 역시 대나무의 굳건함과 우아함 속에서 인간의 고결한 정신을 보아내고 대나무의 품성을 거울로 자신의 인격수양을 닦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靈璧張氏園亭記>는 아름다운 張氏園亭의 묘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철학을 펼치며 仕途에서의 염증과 고달픔을 토로하였으며 은거의 의지를 토로하였다.

<八子百選策>에는 문체의 예속보다는 주제에 치중하려는 박제가의 확고한 견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조가 “<愚溪對>의 비분함과 <毛穎傳>의 특이한 것은 세도에 과연 무슨 보탬이 있겠느냐?”³⁴⁾고 의심을 품자 박제가는 두 작품은 비록 허구성을 띠고 있지만 “속된 것을 고치고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실마리가 된다.³⁵⁾”고 정조의 선정이유에 힘을 실어준다. <毛穎傳>은 한유의 가전체 작품으로서 문체에서는 아직도 쟁론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한유의 정치생애와 관련된 주제이고 인재등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유는 창작에 있어 어떠한 문체나 틀에 구애받지 않고 “以文爲戲”³⁶⁾에 능하였다. 그는 교묘하게 역사사건과 결부하여 의인화의 수법으로 붓의 발명과 광범위한 사용, 그리고 폐

34) 正祖, <策問四·八子百選>, 『弘齋全書』卷五十一, “愚溪對之憤悱, 毛穎傳之尙奇, 果何益于世道.”

35)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藜閣集』下, 앞의 책, 82-83쪽, “未必不爲醫俗砭愚之端.”

36) 梁德林, 『韓愈“以文爲戲”論』, 『廣西師範學院學報』, 2004年第1期.

기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엮으면서 이를 통해 색다른 방식으로 仕途의 불우한 처지를 감탄하고 권세가의 각박함과 매정함을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작품의 완성도에 있어 박제가는 언어 선택도 자못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문장의 “醇厚함을 따진다면 <辨奸論>은 선견지명이 있으나 臣虜와 狗彘의 비유는 기질을 숭상하는 말에 병통이 된다”³⁷⁾하여 선집에 수록하기를 꺼렸다. 이러한 견해는 선비로서의 ‘文以載道’ 사상과도 접맥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文以明道

박제가는 『八子百選』의 문장선정에 있어 문학성 다음으로 주제의 교훈적 가치와 철학적 의미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율분이나 비분으로 찬 문장은 될수록 기피하고 긍정적인 주제를 선호하고 유교적인 이념을 위배하는 주제는 신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리학, 주자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작품을 선정하려고 했던 정조의 기본이념³⁸⁾과도 일치한다.

죽은 자의 행적을 칭송하는 碑文의 선정에 있어서도 인간의 개인적 풍채와 진면목이 돋보이는 비문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徐偃王과 箕子는 똑같이 피신을 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다칠까 우려되어 피신을 한 徐偃王은 기자의 스스로 조심하여 삼가는 것보다

37)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齋閣集』下, 앞의 책, 83쪽, “臣虜狗彘爲尙氣之語.”

38) 尹炫晶(앞의 책, 264쪽)은 정조의 팔가백선 선별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우선, 성리학, 주자학적 관점에 입각한 작품 다수 선별하고 둘째로 모곤의 비평을 일부 수용하여 선별하였으며, 셋째로 저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세간의 평가 등의 외부적 요인은 참고하지 않았고, 넷째로 작품의 주제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인의가 있고 풍채가 있다고³⁹⁾ 생각하여 <衢州徐偃王墓碑>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제가는 주제선정에 있어서 교훈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유중원의 <梓人傳>도 “재상의 역할은 했지만 부러진 상다리도 고치지 못했으니 맞게 쓸 수 있는 재주가 아니⁴⁰⁾”라고 하며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교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론하였다.

한유의 <論佛骨表>는 유가정통사상을 고수하고 용감하게 이단을 배척하는 진언을 하여 그 가치를 남김없이 발휘한 문장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조가 이단배척의 주제로 <論佛骨表>와 함께 <四菩薩閣記>도 선정했다는 것이다. 박제가는 이단과 관련된 문장일지라도 “忠과 孝는 본래 서로 다르지 않기에 함께 실는 것은 결코 이단을 배척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⁴¹⁾는 견해에 입각하여 “효” 역시 함께 중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정조의 선정에 근거를 제시하였다. 歐陽修의 <石曼卿墓表>, 王安石의 <泰州海陵縣主簿許君墓誌銘>, 曾鞏의 <襄州宜城縣長渠記>, <廣德湖記> 역시 諫官 중에서도 爭臣의 사적이 신하로서의 도리를 가르치는 데 더없이 중요한 교훈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 선정해야 된다고 한다.⁴²⁾

蘇洵의 <名二子說> 선정 이유도 그 교훈적 의미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함축된 언어로 두 아들의 이름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아들에 대한 희망과 독려가 포함되어 있다. 장자 蘇軾에 대해서는 스스

39)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菴閣集』下, 앞의 책, 82쪽, “徐偃王碑亂頭粗服, 風神故勝, 箕子碑顧影自喜, 太涉矜慎.”

40)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菴閣集』下, 위의 책, 83쪽, “闕足不治, 非適用之通才, 姑不必多論.”

41)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菴閣集』下, 위의 책, 80-81쪽, “忠孝本非二致, 則菩薩閣之合選於佛骨表者, 果不悖於闢異矣.”

42)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菴閣集』下, 위의 책, 84쪽, “以至石卿許君之志, 西山鄞縣之遊, 爭臣之於諫官.”

로 경시를 하지 말고 진취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고 蘇轍에 대해서는 명철보신만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고 독려하고 있다. 저자는 “軾”의 “不外飾”과 轍의 “免福禍”의 특징을 빌어 교묘하게 인생철학을 펼치고 아들에게 대만함과 명철보신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전하였던 것이다.

5. 氣勢와 論理性

『八子百選』의 저자별 수록 작품을 보면 한유가 30편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러한 수록 편수 차이에 대하여 尹鉉晶은 한유가 고문운동에 있어 원류이자, 주자로부터 지극히 높이 평가받은 인물이기에 정조가 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수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바가 있다.⁴³⁾ 박제가는 정조의 이러한 선정을 전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니와 문장력을 볼 때 오히려 지극히 정확한 선정이라고 강론했었다.

한유는 당나라에서 포의로 우뚝이 일어나 뒤따른 칠대가의 종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셋을 대적하여 높은 자리에 있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⁴⁴⁾

박제가는 한유를 종주로 생각하여 소식, 소순, 소철 세 사람을 대적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추앙한다. 또한 <上張僕射書>의 “새벽에 입궐했다가 저녁에 물러나는 신료들이 있다고 하여 선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구절과 <答李翊書>의 “어진 사람은 그 말이 온화하다”⁴⁵⁾는 구절

43) 尹鉉晶, 앞의 책, 256쪽.

44)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蕤閣集』下, 앞의 책, 84쪽, “韓於有唐, 崛起布衣, 爲後來七子之宗, 則以一敵三, 無愧重席.”

45)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蕤閣集』下, 위의 책, 81쪽, “晨人暮出, 非得士也, 仁義

을 빌어 한유의 본령이 이와 같다면 그의 직설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八子百選策>에 특정 문인의 성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박제가가 한유를 어느 정도로 흠모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박제가가 한유를 최고의 문인으로 간주했던 것은 바로 한유의 문장이 기세가 웅만하고 논리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茅坤은 한유의 문장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며 힘차게 달리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여 마치 千里馬가 번개처럼 달리고 疾風처럼 달리는 것 같으며, 평범한 문장은 산이 서 있는 것처럼 莊重하고, 怪奇한 문장은 벼락을 치듯이 맹렬하다.”⁴⁶⁾고 평가하였으며 蘇洵 역시 “한유의 글은 큰 강과 황하가 거침 없이 흐르며 감도는 같아 물고기와 자라, 교룡과 등 만가지 괴물들이惶惑하게 한다.”면서 사람들이 “그 깊은 빛과 푸른 색깔을 바라보고는 스스로 두려워하고 피하면서 감히 가까이 하여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비유하였다⁴⁷⁾. 따라서 박제가는 한유의 문장선정에 있어서도 기세가 웅만하고 논리성이 뛰어난 문장만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유의 <회변>과 <사설>은 둘 다 비방을 피했습니다. <회변>이 조금 더 나은 것은 사람을 압도하는 데 있습니다. <사설>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에도 겨룰이 없습니다. 방법에 비유하자면 공격이 수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⁴⁸⁾

之人，其言藹如韓公之本領如此”

46) 茅坤, <唐宋八大家文鈔·論例>(역문은 鄭太鉉 역주, 『東洋古典譯註叢書40』, 『唐宋八大家文抄: 韓愈1』, 전통문화연구회, 2010 참조) “吞吐駢頓, 若千里之駒, 而走赤電, 鞭疾風, 常者山立, 怪者霆擊, 韓愈之文也.”

47) 蘇洵, <上歐陽內翰書>, 『古文眞寶大全後集』, 학민문화사, 1992, 418쪽, “韓子之文, 如長江大河, 渾浩流轉, 魚鼈蛟龍, 萬怪惶惑, 而抑遏蔽掩, 不使自露, 而人望見其淵然之光, 蒼然之色, 亦自畏避, 不敢迫視.”

48)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蕤閣集』下, 앞의 책, 80쪽, “諱辯·師說, 均是止謗, 而諱辯之勝, 在壓到人師說, 則遮護自己之不暇, 喻之以兵, 攻先於守矣.”

<師說>이 단순히 스승의 역할과 중요성, 스승의 의미와 교육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 상식적인 교육적 의미에 목적을 둔 문장이라고 한다면 <諱辯>은 변론의 성질이 강하고 논리성이 뛰어난 문장이다. 박제가는 심지어 <師說>을 자신을 변호하는 데 겨를이 없다하여 보다 공격적이고 기세가 뛰어난 <諱辯>을 더욱 뛰어난 문장으로 간주하였다.

祭文과 碑의 선정에 있어서도 박제가는 한유에 대해 맹목적인 흠모를 보이지 않고 냉정한 평가를 가하였다.

한유의 <祭十二郎文>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간절하게 썼으니 공교로움을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공교롭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유의 제문인 <祭河南張員外文>이나 <祭石曼卿文>에 이르러서는 정과 일 이외에 문자를 침삭하고 기교를 부렸으니 소식의 <祭歐陽文忠公文>과 <祭歐陽少師文>두 편이 사귀의 도나 文運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못합니다. 한유의 <衢州徐偃王廟碑>는 꾸미지 않았기에 풍채가 뛰어났고 유종원의 <箕子碑>는 그림자를 돌아보며 스스로 기뻐하니 너무 조심하고 삼가는 듯 합니다.⁴⁹⁾

박제가는 <祭十二郎文>이 글자마다 간절하여 저자의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였기에 굳이 꾸미지 않아도 천고의 명문이 될 수 있었다면 <衢州徐偃王廟碑> 역시 꾸미지 않은 풍채 때문에 <箕子碑>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문장은 꾸밈이 없어야 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넘쳐야 되지 그 외에 유희의 뜻이 가미되었다면 뛰어난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장의 기세 역시 자연스러운 발로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꾸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49) 朴齊家, <八子百選策>, 『貞蕤閣集』下, 앞의 책, 82쪽, “十二郎文, 字字懇到, 不期工而自工. 至張員外·石曼卿則情事之外, 添却擺弄文字一想, 未若祭歐陽二篇之有關於交道文運也. 徐偃王碑, 亂頭粗服, 風神故勝, 箕子碑顧影自喜, 太涉矜慎.”

6. 결론

<八子百選策>은 박제가가 정조의 뜻을 헤아려 근거를 제시한 문장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조의 선정기준을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인으로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근거제시는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군주의 선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박제가만의 문학적 지향이 다분히 체현되고 있다.

박제가는 표현수법이 과하지 않고 꾸밈이 없이 음미할 수 있는 문장, 주제에 있어서도 비관적이고 불만을 토로하는 문장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문장을 선호하였고 초연함을 추구하였다. 그는 문장은性情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여 모든 경물에 기탁하여 자연스러운 감정을 토로하고 그 속에서 인생철학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문학창작에 있어 주제의 교훈적 가치와 철학적 의미도 사뭇 중요하다고 여겼다. 박제가는 당송팔대가 중 한유를 최고의 문인으로 간주하였지만 맹목적인 존송을 보이지 않고 기세가 충만하고 논리성이 뛰어난 문장은 높이 산 반면 자연스러운 성정의 발로일지라도 불필요한 유희의 색채를 띤 문장은 뛰어난 문장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중국을 사모하여 중국문학과 문인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과 흥미를 보였던 박제가 <八子百選策>에서는 극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당송문학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흥미롭다. 그런 의미에서 『八子百選』은 정조의 문체반정과 문장관이 집약된 문헌이기도 하겠지만 조선후기 문인들의 문학관과 문학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품선정에 있어 군주와 문인, 그리고 문인 사이에도 어떠한 견해나 문학적 소견 차이가 있는 지, 그러한 부동한 지향들이 조선후기 문풍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朴齊家, 정민 등 역주, 『貞蕤閣集』上·中·下, 서울:돌베개, 2010.
- _____, 이익성 역주, 『北學議』, 서울:을유문화사, 2011.
- 正 祖, 『弘齋全書』,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1814.
- 김종민, 『韓國 漢文散文에서의 柳宗元 <段太尉逸事狀>의 受容과 變奏』, 『大東漢文學』 42, 大東漢文學會, 2015, 207-240쪽.
- 당윤희, 「모곤의 당송 고문 평점 비평에 대한 고찰-『당송팔대가문초』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86, 한국중국어문학회, 2016, 45-70쪽.
- 민선영, 「마음의 휴식을 위한 공부-『八子百選』과 『八家水圈』의 記를 중심으로」, 『한국산문연구집간』 3, 한국중국산문학회, 2013, 114-126쪽.
- 付 琮, 『清代唐宋八大家散文選本考錄』, 北京:商務印書館, 2016.
- 查屏球·滕漢洋, 「『八子百選』與『唐宋文醇』隱曲關係考-兼論『唐宋八大家文鈔』在東亞書面語共同化進程中的範式研究」, 『中山大學學報』, 2012年第6期, 34-42쪽.
- 오수형, 「正祖의 古文 指向과 御定『八子百選』」, 『중국문학』 6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1, 135-166쪽.
- _____, 「正祖의 韓愈文 수용 양상」, 『중국문학』 70,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255-273쪽.
- _____, 「正祖의 蘇軾 산문 수용 양상 연구」, 『중국문학』 7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3, 177-197쪽.
- 尹鉉晶, 「『八子百選』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大東文化研究』 93, 대동문화연구원, 2016, 243-283쪽.
- 李義康, 「正祖의 唐宋八家文 批評 小考; 文體反正과 관련하여」, 『민족문화』 16, 한국고전번역원, 1993, 145-170쪽.
- 許外芳, 「論蘇軾的藝術哲學」,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Abstract>

The Insights of Park Jega About The Works of Eight Masters of the Tang & Song Dynasties from Palja Baekseon Chaek

PIAO XIANGLAN*

The Palja-Baekseon Chaek is a commentary by Park Jega on the question of Palja-Baekseon of Jingjo, which is a meaningful work containing his respect and criticism for Chinese literature. As a literary person, it just showing Park Jugga's respect and literature differs from the criteria of monarchs with political intentions. It is interesting that Park Jega, who has praised and admired to Chinese literature and literary person, rarely evaluates Tangsong literature using both cool and objective way in the Palja-Baekseon Chaek. In this paper, I study four aspects of the literary tendency of Park Jae-ga by comprehending the king of Jeongjo's opinion. In conclusion, Park pursued a work that was able to enjoy nature and soul to appreciate expressions without any embellishment, preferring a work conveying the positive message rather than the pessimistic and complaint-oriented opinion. He regarded the work as coming from the nature, and made a contribution to all of the scenery to express the natural feelings and present the philosophy of life. In addition, he not only interested in powerful momentum, but also strong grounds of

* Department of Korea Language Faculty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rgumentation.

Key Words: Park Jega, Palja-Baekseon, Palja-Baekseon Chaek, Tang
and Song Literature, Selection criteria

■ 논문접수 : 2018년 11월 14일

■ 심사완료 : 2018년 12월 1일

■ 게재확정 : 2018년 12월 7일